



즉시 배포용: 2017년 1월 19일

ANDREW M. CUOMO 주지사

### ANDREW M. CUOMO 주지사 성명서

“어제 뉴욕주 전 지역에 소재한 유대인 커뮤니티 센터 (Jewish Community Centers, JCC) 3 곳에 익명의 폭탄 테러 위협이 전달되었습니다. 이 사건은 지난 2 주 동안 전국의 유대인 커뮤니티 센터 (JCC)를 대상으로 한 최근의 폭탄 테러 위협의 여파로 보입니다. 주정부는 세 시설 모두와 직접 접촉했으며 시설의 안전을 위한 전폭적인 협조를 약속했습니다.

뉴욕주 경찰 및 현지 법 집행 기관은 즉각적으로 대응했으며 폭탄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지만 허위여부와 상관없이 법에 어긋나는 이런 폭탄 테러 위협을 하는 자들은 절대로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. 주립 경찰은 연방 및 현지 법 집행 파트너들과 협력할 것입니다. 우리는 법이 미치는 최대 범위까지 범법자들의 책임을 묻기 위해 우리의 모든 권한을 행사할 것입니다.

우리는 누구라도 뉴욕주에서 위협을 통해 두려움을 심거나 공포심을 불러일으키도록 내버려 두지 않을 것입니다. 이 혼란스러운 시기에 뉴욕 주민들은 증오와 편견을 조장하여 분열을 초래하는 세력을 거부합니다. 우리는 반유대주의 또는 편견에 치우친 사건들이 반드시 처벌받도록 할 것입니다.”

*편견이나 차별을 경험하신 뉴욕 주민들께서는 뉴욕주 인권국(New York State Division of Human Rights) 무료 직통전화 (888) 392-3644 번으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. 운영시간은 월요일부터 금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입니다. 범죄를 신고하고자 하시거나 본인의 안전을 우려하실 만한 상황이 있다면 즉시 911 번으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.*

###

다음 웹사이트에 더 많은 뉴스가 있습니다: [www.governor.ny.gov](http://www.governor.ny.gov)  
뉴욕주 | Executive Chamber | [press.office@exec.ny.gov](mailto:press.office@exec.ny.gov) | 518.474.8418